

#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2)

## - 도입부의 요소들

By W. L. Brei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i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이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6, No.24 (November 23, 2007)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의 시리즈는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고려점과 함께 시작했다: 그 둘은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와 언약구조의 원리(Principle of Covenantal Structure)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도입부의 그룹 중 시작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 예배로의 부름

기독교 예배에 관한 가장 명백한 명령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 그리고 그러한 류의 많은 다른 본문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많은 부분은 성경읽기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받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방식으로 말한다.

예배의 시작부분으로 우리가 인도될 때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된다: 예배시작을 위한 적당한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의 예배가 언약의 라인을 따라서 구성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복음 진리를 반영해야 하지 않는가?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데에, 그리고 우리를 자신과의 의미있고 친근한 관계에 부르시는 데에 주도권을 가지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른 이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데에도 그의 자비로운 주도권이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다는 점은 좋은 예전적 아이디어이다. 적당한 성경 본문을 읽음으로써(보통 시편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의 현존 속으로 자애롭게 부르신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인해 회중은 이 자리에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하게(remind) 된다.

캐나다 개혁교회들에서 예배로의 부름이 희귀하게 된 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 교회들 중 대부분에서 소위 “하나님을 부름(votum)”이라고 하는 “우리의 도움은 ...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을 통해,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로의 부름에 준하는(quasi)” 것으로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와 같은 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말씀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은 종종 하나님 편에서 목사에 의해 말해지는 진실한 예배로의 부름이라기 보다는 회중을 일어서게 만들기 위한 표식처럼 보인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하는 회중들을 명확히 부르고 계신 짧은 분명한 성경 본문들로 시작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언약적 구조로부터 우리 예배의 특성을 진지하게 가져온 것이라면, 이것은 조심스럽게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 하나님을 부름(Votum)

예 배에서의 다음 표현 역시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의 신앙고백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시124:8). 이 말씀들은 그에게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을 예배 초두에 우리의 입술에 두셨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존을 그에게 두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궁핍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허기가 만족되기를 기다리면서 그에게로 나아간다.

우 리는 이것을 “Votum” 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라틴어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이 말은 ‘절하다’ 혹은 ‘신앙을 고백하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의 라틴어 원형은 우리 예배의 이 요소가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혁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의 서두에 시편 124편 8절을 말하는 예를 단순하게 유지시켰다.

나 는 이미 이 말씀들이 회중의 편에서 나온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 중 대부분에서 목사에 의해 회중의 편에서 이 말씀들이 낭송된다. 이런 방식에서는 회중의 개개 구성원들은 목사와 함께 자기 스스로의 마음 속으로 그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회중들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낭송하는 것이다. 물론 서두가 필요하다; 아마도 이런 정도가 좋겠다. “회중들이여,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또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만약 Votum이 백성들의 편에서 진실한 어떤 것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된다면, 왜 회중들이 그것을 낭송하지 않겠는가?

## 환영(Greeting)

여 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배로의 부름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백성들은 신앙고백으로(Votum으로) 반응한다. 언약 구조에 따르면,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하여 환영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목사는 손을 들고(축복과 환영을 위한 전통적인 예전적 제스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사(salutation) 혹은 환영(greeting)을 말한다.

여 기에서 다시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적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읽고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의 임재 속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신앙고백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교회들이 그에 의해 환영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영하신다. 이 모든 점들에서 예배 속에는 실로 두 “부분들(parties)”이 있음과 그 부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이 충분히 명확해졌다.

환 영의 끝 부분에 목사를 통해 “아멘”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당신이 “아멘”을 떠올릴 때, 단순하게는 “그것은 참이요, 확실합니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 환영에다 그의 보증을 두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자신의 “아멘”으로서 반응해야만 한다. 마음과 목소리 모두로서 말이다. “아멘”이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환영받게 됨을 확신한다는 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 여는 찬송(Opening song)

예 배 시작 부분의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통상 여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노래들 중 하나이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머지 예배를 준비케 한다.

시 편을 노래하는 것(singing of psalms)과 찬송가(Hymns)가 기독교 예배에 있어 신적으로 명령된 부분인가에 관하여는 별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 비록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과 같은 본문들이 원래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관한 소개로서 씌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불러야할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다. 그보다 더욱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대한 찬미로서 그리고 있고, 우리는 오직 이것이 또한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행해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기술했 바와 같이 이는 어떤 기독교 진영에서는 논쟁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하고, 만약 그 욕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다음 회에는 예배의 다음 부분인 죄의 고백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